

●발언에서의 팁 정리

-**해요체 절대 no!** 비격식체임. 물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괜히 까일만한 여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면접 수업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해요체를 많이 써요.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니 체화가 안 되었다는 거겠죠? 당시에 저는 학생들에게 손윗사람에게는 모두 하십시오 쓰는 연습을 해라 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서울교대를 준비했던 x연 학생은 현역시절 춘천 교대 면접장에서 말도 정말 잘 했고 입실 때 분위기도 좋았는데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해요체만 구사했었다고. 그 이유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최대한 지양합시다. 하십시오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습!

-**면접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은 두부류. 답정너 질문or가치판단질문.**

예를 들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질문 같은 경우 어린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교대 준비생이라면 찬성을 해야겠죠. 가장 큰 논거는 다른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수업에 방해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1퍼센트의 사고를 위해 CCTV설치는 필요하다. 라고 말 하면서 말이에요. 보통의 교대생들에게 요구하는 답변이 있고 주장 자체보다는 논거를 잘 펼쳐야 하는 질문이 답정너 질문입니다.

반대로 창의성이 더 중요하나 사회성이 더 중요하나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닌 가치 판단의 질문입니다. 즉 어떤 대답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질문을 가치판단 질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답정너 질문 해결 루트-정해진 답을 한다.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끝.

이러면 떨어집니다... 정해진 답을 제시한다.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반박 의견을 제시 하면서 나도 그러한 반박 의견이 알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이 더 가치 있음을 피력or반박 의견이 제시한 내 주장의 허점에서 이런 점을 ~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마칩니다.

ex)저는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에 서툴러서 사고가 일어나도 그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1%라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는 교사의 인권문제, 수업 방해와 같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구나 원활한 수업 또한 어린이집에서 지켜져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논점은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설치가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님을 교사들에게 인지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의 피드백을 교사에게 정부적 차원에서 제공한다면 CCTV설치로 인한 우려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